선학원, '성범죄 이사장' 법진 스님 재선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9월28일 이사회에서 결의
거센 비판여론 의식한 듯
"인적 쇄신 후 사직" 발언

재단법인 선학원이 다시 '성범죄 이사장' 체제로 회귀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성범죄 전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이 제21대 이사장에 재선출된데 따른 것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9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 前이사장 법진 스님을 2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법진 스님을 비롯한 재적이사 14명이 전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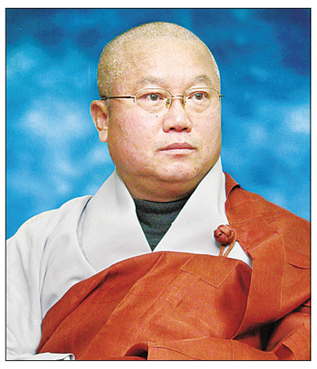
선학원 매체인 불교저널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인사말을 통해 이사회의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를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른 시일 내에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선학원 100년을 이끌어갈 새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장 소임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진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성범죄 전력 등 개인적 비위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진 스님은 19대 이사장 소임을 맡았던 2018~2020년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돼, 현직 이사장으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불교계 안팎으로 비판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이사장 소임을 내려놨다.

이어 20대 이사장에 송운 스님이 선출됐지만, 법진 스님의 이사회 장악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일시적으로 이사장 직을 내려놓았을 뿐,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송운 스님이 조계종 前총무원장 석주 스님의 상좌라는 점에서, 12년간 사실상 독주체제로 이사회를 운영해 온 법진 이사장 체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일부 제기됐다. 법진 스님 체제에서 악화일로를 걸었던 조계종과의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물론, 지속적으로 비판 받았던 밀실행정과 운영 불투명성, 창건주·분원장을 옭죄는 각종 규제 등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송운 스님은 임기 시작 후 6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사직했고, 이후 선학원이사회는 총무이사 지광 스님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런 가운데 9월 10일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이사장 선출의 건'이 상정하면서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선학원의 위상을 바닥으로 실추시킨 前이사장을 재선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선학원 창건주·분원장들의 모임인 선학원미래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선학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은 덕망 높은 승려로 명시돼 있다"며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정관에 따라 이사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여론에도 결국 선학원이 9월 28일 이사회에서 법진 스님의 이사장 재선출을 결의함에 따라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학원 창건주인 한 스님은 "사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 사이에서 법진 스님이 다시 이사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송운 스님이 잠시 이사장직을 맡았던 것도 결국 법진 스님에게 쏟아진 비판여론을 잠시 피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생각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재 강탈당한 봉은사, 국가보상 받는다

9월18일 서울중앙지법
공무원 불법 책임 인정

국가 농지개혁사업 과정 중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토지를 강탈당한 봉은사가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다.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봉은사에 약 487억 139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58년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 사업을 추진하며 봉은사 소유 대치동·삼성동 일대 토지 2만 900평을 사들였다. 정부는 이 땅을 경작자에 분배했고, 분배되지 않은 땅은 1968년 농지개역사업 정리 특별법에 의해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반환케 했다.

문제는 1971년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분배되지 않은 땅이 분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면서 발생했다.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며 봉은사는 반환받을 땅을 받지 못했다.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봉은사는 토지 최종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통한 토지 반환 소송에 나섰지만 소유권이 이전된지 10년이 넘었고, 제3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했다.

봉은사는 결국 201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분배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봉은사는 이로 인해 소유권이 상실했다. 국가는 봉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 토지 감정가는 695억 1300만원으로 재판부는 봉은사가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했던 점과 국가가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책임을 감정가의 70%로 한정했다.

한편, 봉은사는 2017년 8월 농지개혁사업 정리 특별법에 의해 반환받아야 했던 강남구 일대 토지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망실된데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2019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40평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나눔의집 감사에 우봉 스님…의결 기준도 명확화

9월27일 7차 임시이사회서
감사후보 추천…차기 확정
의결시 재적과반 기준키로
차기이사회, 11월 9일 개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9월 27일 제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선임의 건 등을 논의했다.

임기만료된 나눔의집 감사에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이 추천됐다. 임시이사회는 광주시 등에 감사 후보를 복수추천받아 차기 이사회서 최종 선임키로 했다. 또 안건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관 조항의 유권해석을 통해 앞으로 출석의원이 아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9월 27일 제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선임의 건을 포함해 △1차 추경예산안 △통합운영규정 개정의 건 △이사 사임의 건 △정식이사 선임의 건 △2021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 심의 등 7건의 안건을 다뤘다. 대부분 안건은 지난 6차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이월된 건으로, 이번 이사회에서도 감사 선임의 건을 제외한 안건들은 모두 차기로 이월됐다. 이사회는 전체이사 10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감사 선임의 건은 기존 감사 호련 스님과 김민성 회계사 2인의 임기가 9월 6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애초 호련 스님의 연임결정으로 나머지 1인에 대해서만 단수추천 방식으로 선임키로 했으나, 연임결정 번복에 따라 2명 모두 신임 감사로 선임된다.

감사 후보에는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 외 1인이 추천됐다. 이사회는 감사후보로 광주시 복수추천인사를 추가해 후보군을 확정, 차기이사회서 최종선임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전차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를 받아들여 당시 의결된 예산안을 차기이사회서 추인키로 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의결정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동안 임시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안건 의결시 정족수 기준을 출석이사의 과반으로 처리해 왔으나, 유권해석에 따라 재적이사의 과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차기이사회부터는 안건 의결시 정족기준을 명확화해 제적이사 과반으로 결의키로 합의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모든 안건을 상정 후 11월 9일 예정된 차기이사회로 이월했다.

한편 경기도청과 나눔의집은 이사회에 앞서 故정복수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제막식에는 할머니 손자인 김현석씨를 비롯해 이찬진 나눔의집 법인 대표이사 직무대리, 상임이사 직무대리 혜일 스님을 비롯한 이사 스님들, 양한석 나눔의집 할머니 유족회장과 경기도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故정복수 할머니는 인본국 위안부 피해자로 1945년 해방 후 귀국, 2013년 나눔의집 양로시설에 입소해 거주하던 중 올 2월 세연을 접었다.

경기도 광주=송지희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도선사 주지에 태원 스님

원행 스님, 9월 30일 임명장

조계종 직할교구 서울 도선사 주지에 태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30일 도선사 주지에 태원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큰 소임을 맡게 되어 책임이 클 것"이라며 "전임 주지스님의 뜻을 이어 대중들과 화합하여 사찰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복지사업 및 육영사업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또 前주지 도서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임기 중 가람정비 및 도심포교 활성화와 종단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하고,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기획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법장사 주지, 보문사 주지, 봉황사 주지 및 제16대, 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호법부장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군종교구, 9월 27일 부교구장 임명 단행

능원·성광·법원 스님 임명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일)는 9월 27일 육·해·공군 부교구장을 임명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교구 회의실에서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주관으로 진행된 부교구장 임명식에서는 부교구장을 역임한 육군 부교구장 능원 스님(전 남해 보리암 주지)과 공군 부교구장 성광스님(현 용주사 종회의원)이 유임됐으며, 새롭게 해군 부교구장으로 현 직할교구 종회의원 법원 스님이 임명됐다.

군종교구는 "부교구장스님들은 육·해·공군 군승 출신으로 교구장스님을 보좌하여, 군불교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1227주년

비대면 온라인 개산대재 전통문화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축제

봉은사는 개산 1227주년 개산대재를 맞이하여 다례재를 시작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축제 행사가 펼쳐집니다.

10월 6일(수)은 역대조사 스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 뜻을 기리는 〈역대조사 헌공 다례재〉와 10월 8일(금)은 판전에 소장된 주요 문화재인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하고 봉은사 도량과 법계도를 요잡하는 〈정대불사〉가 진행되며, 불교 전통방식으로 진행하는 〈생전예수재(서울시 무형문화재 52호)〉를 10월 13일(수) ~ 14일(목, 음 9.9)에는 봉행합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행사로 전국 다기 장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국 찻사발 108인전〉 특별전시회와 전통예술의 정수를 선보일 〈마당놀이(심청전, 남사당놀이)〉, 〈전통등 전시회〉, 〈차문화 프로그램〉, 〈사찰음식 전시〉, 〈국화대축제〉, 〈전통문화한마당〉,〈행복나눔바자회〉,〈봉은사 그림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봉은사 1227주년 개산대재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행 사 명	일 자	시 간
국화대축제	10월 3일(일)~10월 25일(월)	
역대조사다례재	10월 6일(수)	9시~12시30분
신도회 행복나눔 바자회	10월 6일(수)~10월 10일(일)	10시~17시
한국 찻사발 108인전 특별전시회	10월 6일(수)~10월 14일(목)	10시~17시
사찰숲길 사진전 및 역사사진 전시회	10월 6일(수)~10월 14일(목)	10시~16시
사찰음식 전시회	10월 7일(목)~10월 11일(월)	10시~16시
다도공연 (선무/불차/선차)	10월 7일(목)	18시~21시
정대불사	10월 8일(금)	9시~12시30분
마당놀이 (심청전)	10월 8일(금)	16시~18시
발우공양 시연 및 체험	10월 9일(토)~10월 11일(월)	10시~11시
전통문화체험한마당	10월 9일(토)~10월 11일(월)	10시~16시
템플문화한마당	10월 9일(토)~10월 11일(월)	10시~16시
생전예수재 학술세미나	10월 9일(토)	13시~16시
사찰음식 강연회	10월 9일(토)~10월 11일(월)	12시~13시 / 14시~16시
국악한마당	10월 9일(토)	19시~21시
한밤의 독립영화상영제	10월 9일(토)~10월 12일(화)	19시~21시
그림그리기 대회	10월 10일(일)	10시~15시
들차회 시연 및 체험	10월 10일(일)	11시~16시
마당놀이 (남사당놀이)	10월 10일(일)	16시~18시
전통등 전시회	10월 11일(월)~10월 17일(일)	19시~23시
가을(산사)음악회	10월 11일(월)	19시~21시
사찰음식 도시락	10월 12일(화)	11시~12시
차 문화 학술세미나	10월 12일(화)	14시~17시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	10월 13일(수)~10월 14일(목)	9시~17시

*코로나19로 유튜브 중계 등 비대면 온텍트 축제로 진행함.



주최/주관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서울특별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있는 강남